

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 (에베소서 1장 3절)

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

1.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

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.

- 구약에서 ‘복’은 아쉬레(축하받는 복) 와 바라크(하나님의 축복)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
-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.

2. 예수 안에서 받은 복

1) 하나님의 선택(택하심)

-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.
- 우리의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존재입니다.
- 이 선택은 우리를 열등감에서 자유롭게 합니다.

2) 하나님의 예정(예정)

-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예정하셨습니다.
- 마치 부모가 자녀의 삶을 준비하듯, 하나님도 우리를 위한 길을 미리 마련하셨습니다.
- 세상이 불확실해도,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.

3. 축복의 목적: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

- 우리가 받은 복은 십자가의 은혜이며,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.
- 세상의 복은 나를 중심으로 하지만,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합니다.
-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.

결론: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자

- 하나님이 택하셨으므로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.
-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므로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받은 복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삽시다!

"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."